

광주 방학 중 장애학생 학교가 돌본다

시교육청, 7월부터 2곳 시범 운영 위해 공모...1개교 신청 전교조 광주 “학교에 떠넘기기...전문인력 구하기 어려움”

광주시교육청이 그동안 학부모가 주도했던 장애 학생 방학 중 돌봄을 전문기관 운영 체제로 전환한 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 학교 공모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모집한 결과, 사립인 세광학교 1곳이 신청했다.

시범학교는 여름방학 10일, 겨울방학 15일간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이상 돌봄, 통학차량·중식도 제공해야 한다.

또 돌봄인력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와 지원교사, 보조인력, 통학차량 운영 등 15명에서 30명이 필요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특수학교는 5개교로 초·중·고·성인 등 총 3400여명이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방학 중에는 특수학교에 학생을 보낼 수 없어 장애인학부모연대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을 위탁 운영했다. 매년 200~300명 학생이 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부모연대는 “인력난이 가장된데다 교육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1년부터 시교육청과 특수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희망한 학교 1개교(사립)와 공립학교 1개교를 추가 모집해 총 2

개교에서 오는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학 프로그램은 돌봄이 아닌 학생의 특기 신장 기회 제공과 일상생활 능력 신장,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다.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김선성 과장은 “교직원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 많은 협의와 고민을 해 왔다”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방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업무를 학교로 떠넘기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 모집은 결국 학교 현장에 떠넘기기식 관료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학교 주

요 운영 내용은 여름방학 10일·겨울방학 15일, 1일 5시간, 통학 차량 및 중식 지원 등 교육 편의 제공”이라며 “이를 위해 핵심 쟁점인 인력을 학교마다 15~30여명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방학 중 단기 근무, 높은 업무강도, 낮은 보수 등 특수교육의 특수성에 비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광주지부는 “시범학교 정책 내용을 보면 예산을 보낼 테니 운영계획서 쓰고 모든 인력을 구해서 운영하고,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식이다”며 “전형적인 학교에 떠넘기기식 무능한 관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조례를 제정해 직접 사업으로 특수교육 방학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365일 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자기 가게 불 지르고 신고 여수경찰, 30대 여성 조사 중

여수에서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직접 119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16일 새벽 5시 10분께 여수시 여서동의 한 상가 4층에 있는 피부관리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매장 주인 A(여·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분 만에 불을 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바닥에 수건 등을 모아 불을 붙였다가, 관바로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마스크 벗으니...수두·유행성이하선염 급증

광주서 지난달 244명...5배 늘어

광주에서 봄철 학령기 아이들의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의심 환자는 244명으로 3월(53명)보다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1~4월 의심 환자는 202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420명이나 됐다.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

염병이다.

봄(4~6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며,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에 발생 빈도가 높다.

예방 접종과 함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발열·발진 등 증상이 보이면 등교·등원 안 하기 3대 예방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임진석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등원·등교 중지 기간에는 격리해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설월여고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광주시교육청이 ‘맘 편한 화장실’을 설월여고에 처음으로 조성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내 집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맘 편한 화장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시범학교로 선정된 설월여고에 첫 ‘맘 편한 화장실’이 문을 열었다.

〈사진〉

설월여고는 지난 4개월 동안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디자인계획 설계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사업을 마쳤다.

학생 정서를 고려해 파우더공간,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조명거울, 대변공간 확장, 세면공간 현대화 등 감각적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또 광주 최초로 시간 제약이 가능한 냉난방기와 악취 제거를 위한 공기순환기도 설치해 365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맘 편한 화장실’ 사업을 화장실 노후 정도에 따라 전면보수, 부분 보수,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까지 모두 1675억원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화장실을 내 집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주먹밥 재현 16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일원에서 시장 상인들과 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5·18 주먹밥 재현' 행사를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경찰, 테러취약시설 특별 점검

19일까지 병원·컨벤션센터 등

광주경찰청은 19일까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합동테러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방,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광주시 테러취약시설로 지정돼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중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이다.

경찰, 광주시, 소방,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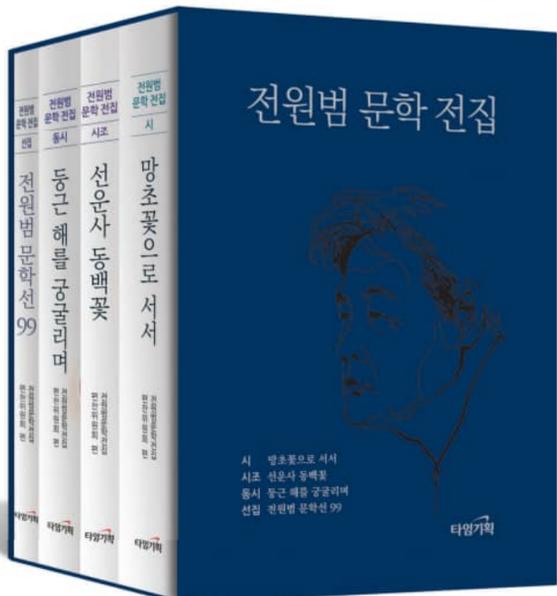
계기관 합동 점검반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제14회 비엔날레, 5·18기념식 등 중요행사 대비 강화된 경계태세 유지를 당부하며 관계기관 비상 연락망 체계 자체 방호 계획 CCTV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관내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상시 합동 점검을 통해 테러 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환(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